

테니스 정현, 8년 만의 데이비스컵서 패배…권순우는 우천 연기(종합)

등록 2025.09.12 21:54:37



[서울=뉴시스] 테니스 정현. (사진=대한테니스협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엽 문채현 기자 =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머큐리·379위)이 8년 만의 데이비스컵 복귀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정현은 12일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2025 데이비스컵 월드그룹1 첫날 1단식에서 카자흐스탄의 알렉산드르 셰프첸코(97위)를 만나 0-2(4-6 3-6)로 패했다.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국가대표로 돌아온 정현은 이날 경기 1세트 게임 스코어 4-4까지 맞서며 팽팽하게 경기를 끌고 갔으나, 잦은 실수를 범하며 1세트를 내줬다.

2세트는 게임 스코어 3-1로 앞서나갔으나, 실수와 함께 평정심을 잃고 3-6 역전패를 당했다.

대회 첫 경기를 카자흐스탄에 내준 한국은 이어진 2단식에서 반격을 시도했으나 비에 가로막혔다.

이어진 2단식에 나선 권순우(478위·국군체육부대)는 올해만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단식에서 3차례 우승을 차지한 카자흐스탄의 강자 알렉산드르 부블리크(19위)를 상대로 우위를 잡았다.

권순우는 타이브레이크 접전 끝에 1세트를 7-6<8-6>으로 힘겹게 따낸 뒤 기세를 몰아 2세트도 3-0으로 앞서나갔다.

하지만 2세트 진행 도중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경기는 중단됐다.



[서울=뉴시스] 비가 내리는 춘천 송암테니스장 센터코트. (사진=대한테니스협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개를 기다렸지만, 끝내 이튿날로 연기됐다.

대한테니스협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순우와 부블리크의 경기가 2일 차인 13일로 연기됐다"고 알렸다.

이어 "13일 경기는 애초 오전 11시 시작으로 안내됐으나, 기상 예보에 따르면 아침 일찍부터 계속 비가 내릴 거로 보인다"며 "13일 오전 8시30분 기상 상황을 확인한 뒤, ITF 레퍼리의 결정으로 당일 경기 시작 시간을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데이비스컵은 파이널스, 최종본선진출전 다음 등급인 '월드그룹 1'등급의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국가대항전이다.

이번 대회에서 승리하는 국가는 2026년도 파이널스 출전국을 가리는 최종 본선 진출전(퀄리파이어)에 나서고, 패한 국가는 월드그룹 1 플레이오프로 밀려난다.

정종삼 감독, 김선용 코치가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정현, 권순우, 남지성(복식 147위·당진시청), 박의성(복식 256위·대구시청)으로 구성됐다.

13일 권순우와 부블리크 경기에 이어 열리는 복식 경기에선 한국의 남지성-박의성 조가 카자흐스탄의 비비트 주카예프(207위)-티모페이 스카토프(235위) 조와 맞붙는다.

이어 3, 4단식은 정현-부블리크, 권순우-세프첸코 경기로 진행된다.

5차례 열리는 경기에서 먼저 3승을 따낸 국가가 승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dal@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